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음 1월 12일) 제17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정읍 구제역 확진 방역당국 '초긴장'

쌀값 하락·AI 확산 등 인해 농민들 '삼중고'
송 지사,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형성을 저조농가
긴급 백신·우제류 사육농가 예찰 강화 지시

쌀값 하락과 AI 확산에 이어 구제역 발생으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동 통제초소 운영, 축사 주변 소독 등 방역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만 전염병이 일단 발병했다 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김제시 금구면의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273만3,000수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살처분 마릿수가 무려 3,292만 마리에 달한다.

실상가상으로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정읍 산내면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터졌다.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축은 4마리뿐이지만 긴급 방역 차원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되던 49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정읍 산내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

제역이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7일 송지진 지사는 정읍 산내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및 김제 공덕산란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실국장과 긴급 차단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송 지사는 구제역과 AI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살처분 실시 및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20km 내 긴급 Ring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형성을 저조농가의 긴급 백신 및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 예찰을 강화도록 지시했다.

한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 산내면 한우농장의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 항체 형성률을 97.5%로 보고 있던 방역 당국의 판단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다.

사육 마릿수가 많은 9개 시·도의 소·돼지 평균 항체 형성률을 보면 충남 79.6%, 강원 77.5%, 충북 75.8%, 경북 72.2%, 전남 69.7%, 경기 68.3%, 전북 67.4%, 제주 65.9%, 경남 64.5%이다.

평균 항체 형성률이 60%를 웃돈다는 점에서 구제역 차단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30%를 밑도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8~10월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도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574곳에 달했다. 이들 농가가 백신을 제대로 놓지 않았다면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우려는 여전히 큰 셈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의 한우 20두를 조사한 결과 1두에서만 항체 형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상으로는 지난해 8월 28일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돼 있

지만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통상 6개월 이상 효력을 가진다.

앞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도 항체 형성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하면 소는 돼지에 비해 항체 형성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만 접종했다면 항체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냉장 보관했던 백신을 실온 수준인 18°C까지 올려야 하는데 역학조사 결과 두 농장 모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백신 접종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역당국 내에서는 취약 농장의 기준을 잘못 선정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50두 이상의 소를 기르는 대규모 농장은 자체적으로, 50두 이하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구제역이 확진된 보은과 정읍 농장 두 곳 다 50두 이상 농장으로 등록돼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용 기자



살처분된 소 도내 최대 축산단지 중 하나인 정읍시 산내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7일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한우 살처분 된 소를 굴삭기로 옮기고 있다.

현재, 증인신문 22일까지 진행... 2월 탄핵심판 선고 '난망'

박 대통령 측 신청한 17명 증인 중 8명 추가 채택... "빨라야 내달 초 가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2일 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내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현재는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에 대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오는 22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오후 3시 이상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 4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순으로 나머지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박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현재가 오는 22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추가 변론 없이 곧바로 최종변론을 23일이나 24일 열더라도 2월 내 선고는 어렵게 됐다.

현재가 통상 최종변론을 연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판관 평의를 가진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평의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이같은 결정서 초안 작성이 이뤄진 뒤 이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월 내 선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같은 해 4월30일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현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농산물 산지유통 234억 투자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도가 생산자 조직화, 거래규모화, 유통 전문화 및 상품화 시설구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에 234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 실현을 위해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지유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시장 다변화와 교섭력 강화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 단위로 품목별 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가 이뤄지면 판로 확대, 시장 교섭력 제고,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시·군 농산물의 규모화에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社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지역: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3면 -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2월 10일 언저리' 5면 - "에코시티 학교시설 국회 차원 대응할 것"

김제시의회 http://council.gimje.go.kr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입니다.